

■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 무용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 무용 분야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심의) 2023년 12월 6일(수) 13:00~18:00 / 서울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2차 인터뷰심의) 2023년 12월 13일(수) 09:00~18:00 / 서울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설진, 김평호, 오자현, 탁지현

공연예술 창작주체 사업은 지속 가능한 공연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단년 프로젝트(사업)의 문제들을 보완하여 다년간의 지원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창작주체에 대한 집중 지원과 육성을 도모하고자 개편된 사업입니다.

각 심의위원은 무용 분야 공연제작, 공간운영, 축제 및 비평조직 등 각 분야 생태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 목적과 심의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정한 심의 과정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공연예술 창작주체 무용 분야 심의는 지원서류 미비로 인한 결격 1건을 제외한 총 43건의 신청 서류를 각 심의위원이 사전에 전수 검토하여 1차 서류심의를 진행한 후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였고, 2차 인터뷰 심의는 총 25개 단체 대상으로 대표자 사업 발표 및 단체 질의응답을 통해 3개년 계획에 대한 비전 및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확인하고 지원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단체를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각 심의위원은 사업 공고문에 공지된 심의 기준인 신청단체의 예술 활동 이력 및 대표적 사업 수행 성과를 살펴보고 3개년 계획에 대한 명확한 비전 및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졌는지, 단체 활동 기반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인지 살펴보았으며 또한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였는지, 향후 예술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점 고려 사항은 무용계 비평, 창/제작, 축제, 공간운영 등 특성에 맞는 신청단체의 실행 능력 검증을 통해 무용계 전체 현장성과 확장성을 넓힐 수 있는지, 각 단체가 제시한 선진적인 운영체계 확립 방안과 비전 제시의 명확성, 파급효과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선정된 단체의 공통된 강점은 특정 일부가 아닌 무용 예술가 전체를 위한 사업 목적의 공공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제시하였던 점, 그 계획에 맞는 예산 배분이 적절하였던 점, 대표자 인터뷰를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실행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비전이 분명하였던 점, 단체의 활동이 무용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신청 비율에 따라 선정 비율을 유지하는 ‘지역균형지원제’까지 고려하여 무용 분야 총 21개 단체를 대상으로 19억 8천 4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연비평, 축제 및 행사, 공연제작, 공간운영 등 무용계 전반을 이끌어가는 사업을 한꺼번에 심의하게 되어 어려움이 컸지만, 기존 중장기창작지원 사업으로 지원해 온 공연제작 사업뿐만 아니라 비평, 축제 및 행사, 공간 등 각 단체에서 제시한 장기계획을 3년간 연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히게 되어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 신청에 대한 문호를 매해 열어야 하는 상황에 따라 모든 단체를 3개년 지원으로 선정하지는 못하게 되었고, 사업 내용 및 예산계획의 검토를 통해 일부 단체는 지원결정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단년 지원으로 선정된 단체는 내년에 계획된 사업을 잘 운영하시고 향후 단체의 3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재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선정된 단체에 공통으로 요청하는 것은, 사업 목적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므로 향후 운영하는 사업에서는 사전에 공식적으로 공고하지 않은 내용으로 참여하는 안무가나 무용수에게 티켓 강매를 하거나 운영비, 참가비, 촬영비, 광고료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사별 운영 주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사업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운영 주체를 구체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함께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지원신청 단체들의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에는 송구한 생각이 큼니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 대부분도 보조금 의존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 아쉽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단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선정된 단체에서는 더 능동적인 기획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 무용계의 인프라가 넓어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선정되지 못한 단체에서는 무용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획과 운영 단체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 무용 분야 심의위원 일동